

영재와 일반 남아의 자존감 비교 및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별 신체증상 및 공격성 분석

박 혜 원

울산대학교

하 정 연

울산대학교

문 지 혜

경남대학교

영재 남아 132명(초등학생 23명, 중학생 109명)과 일반 남아 282명(초등학생 29명, 중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과 공격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명시적 자존감의 경우 영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운동 능력을 제외한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외모,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암묵적 자존감에서는 영재 아동과 일반 아동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영재 남아의 두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두 자존감 수준이 일치할 때보다 불일치할 때 신체증상과 공격성이 더 높았다. 아동기부터 두 자존감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고 영재 아동을 위해 자존감일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영재 아동,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 공격성, 신체증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의 개발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2000년에 영재교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영재교육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에는 그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대상자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교육부, 2000; 교육인적자원부, 2008). 따라서 다양한 영역의 영재를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의 확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활발하

다. 그런데 국내의 영재교육은 주로 수학과 과학 등 교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영재아동을 위한 지적인 지원뿐 아니라 사회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Khoury & Appel, 1977; Knepper, Obrzut, & Copeland, 1983). 그 이유는 영재아동들이 우수한 지적인 발달에 비해 사회정서발달은 일반 또래수준인 경우 발달 영역간 불일치가 나타나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영재아동의 높은 지적 호기심과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불안, 우울, 주의산만 등의 문제를 보일 수 있고 또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발달되어야 할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재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이나 적응에 중요한 자존감의 발달에 관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영재아동이 높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전경원, 2000; 정수자, 1997; Ablard, 1997; Chan, 2001), 다른 연구들은 영재아동들이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Forsyth, 1987; Lea-Wood & Clunice-Ross, 1995).

영재아동이 사회·정서적으로 취약하지 않다는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영재아동의 정서적인 문제가 적으며(Robinson, 2008; Terman, 1925; Terman & Oden, 1947), 전반적으로 우수성을 지니고 있고 이상적인 여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Cornell, 1983). 또한 쉽게 흥분하지 않고 화도 잘 나타내지 않고 욕구 좌절에 대해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독립적, 협동적, 자기 신뢰적이며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배려한다고 하였다(Ehrlich, 1982).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Knepper et al., 1983), 또래에게 인기가 있고 운동을 잘하며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덜 일으킨다고 보고한다(Dauber & Benbow, 1990; Ludwig & Cullinan, 1984).

그에 반해, 영재적 특성으로 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다(Altman, 1983; Webb, 1993; Whitmore, 1980). 예로 영재들은 정서적인 예민성과 과도한 흥분으로 극단적으로 유쾌할 수도 있지만 더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학교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Roedell, 1984). 국내 연구에서도 영재로 추천된 유아를 대상으로 K-CBCL을 통해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임상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T점수 60대 이상으로 조사된 아동이 적지 않았다(안도희, 한기순, 김명숙, 2009). 구체적으로 내재화 문제는 1명(6.25%), 외현화 문제 1명(6.25%), 위축 3명(18.75%), 우울/불안 3명(18.75%), 사회미성숙 3명(18.75%), 사고 문제 1명(6.25%), 주의집중 1명(6.25%), 공격성 2명(12.5%) 등으로 1가지 영역 이상의 위험군으로 나타난 아동이 8명(50%)에 달했다. 그 아동들 중에 4명은 2가지 영역 이상의 문제행동을 복합적으로 보이고 있어 영재들의 정서행동특성에 많은 관심과 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영재아동들에게도 사회 정서적으로 취약성이 나타나며 학교 부적응, 도덕적 범죄, 학업미성취, 공격성, 불안, 우울증, 낮고 부정적인 자존감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사회정서적 특성의 기초를 이루어 중요하다.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서 아동들의 사회정서적 특성과 적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높은 자존감을 지니는 아동은 긍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낮은 자존감을 지니는 아동들은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로 알려져 있다. 즉, 높은 자존감을 지니는 아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성취를 보이며, 자기확신, 잠재적인 지도력, 사회적 기술이 능숙하다고 하였다(Rosenberg, 1965). 반면 낮은 자존감을 지닌 아동은 불안한 정서를 지니고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고 낮은 성취를 보인다. 또한 성공의지가 낮고 공격성이 높으며 적응문제, 행동상의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윤여홍, 1998). 하지만 최근 높은 자존감을 지닌 아동에게서도 부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행집단에서 비행을 통해 자존감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Kaplan, 1982)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비난에 대해 더 방어적이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Blaine & Crocker, 1993; Bushman & Baumeister, 1998).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자존감의 측정방법이나 정의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새로운 접근들에는 전반적 자존감이 아닌 영역별 자존감을 측정하려는 시도(Harter, 1982) 및 수행결과에 좌우되는가를 반영하는 수반적 자존감을 측정하려는 시도(Kernis, 2003), 자기보고 편파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하려는 시도(Greenwald & Banaji, 1995, Nuttin, 1985) 등이 있다. 이 시도들 중 암묵적 자존감은 명시적 자존감 척도들이 가진 문제를 극복하면서 또한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확인하고자 개발되었다. 암묵적 자존감 척도는 정보처리과정의 합리적/의식적 과정이 아니라 감정적/자동적 과정에 근거한 자존감을 측정하려는 시도에서 등장하였다. 정보처리에 대한 이중 과정 모델에 따르면, 합리적/의식적 정보처리 과정은 정보에 대한 조작 혹은 통제가 가능하지만 감정적/자동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Epstein & Morling, 1995). 이런 정보처리의 특징에 근거해 사회인지 분야에서 암묵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문지혜, 2009). 인지심리학과 사회인지의 이런 접근방식에 근거해 로젠버그식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의 혼란스러운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자존감도 암묵적 척도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Greenwald와 Banaji(1995)는 정보처리 이론적 관점에서 암묵적 자존감과 명시적 자존감을 구분하였다. 즉, 암묵적 자존감은 의식적 수준에서 통제가능한 자기평가와는 다른 비의식적이면서 통제가능하지 않는 자기평가로 접근불가능한 자기평가라고 정의내렸다. 암묵적 척도는 주로 특정 자극에 대한 감정적 점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자극에 대한 감정적 평가는 Zajonc(1980)에 따르면 현상학적 인식 밖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암묵적 자존감 척도에서는 제시되는 자극이 ‘나’, ‘나의’, ‘나는’ 등의 자기를 표상하는 대명사 혹은 ‘이름’을 매우 빠른 속도로 제시하여 이 자극에 대해 유발되는 감정 유형이나 이와 연관된 정적 단어에 대한 평가속도 등을 암묵적 자존감 척도로 사용하였다(Nuttin, 1985; Pelham & Hetts, 1999; Spalding & Hardin, 1999).

특히 암묵적 자존감은 명시적 자존감보다 더 기본적이면서 더 일찍 형성된다(Hetts & Pelham, 2001).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자신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감정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 이 순간부터 우리자신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자존감이 손상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때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키

는 노력도 아울러 하게 된다. 하지만 이성적이며 합리적 노력은 명시적 자존감의 내용과 수준을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부적 결과로 인해 이미 손상된 감정까지 회복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부적 경험을 많이 경험한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암묵적 자존감은 저하를 경험하지만 명시적 자존감 측면에서는 두 방향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아동들 중에는 명시적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의식적 노력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저하된 자존감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두 유형의 자존감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두 자존감의 수준이 불일치한 집단들이 일치한 집단보다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더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명시적 자존감은 높으나 암묵적 자존감이 낮은 ‘불일치’ 집단이 타인의 평가에 대해 방어적으로 행동하거나(Jordan, Spencer, Zanna, Hoshino-Browne, & Correll, 2003), 더 공격성을 나타냈다(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또한 불일치의 유형에 따라 우울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박승진, 2008). 또한 명시적 자존감보다 암묵적 자존감이 우울을 더 잘 예측하였다(Frank, De Racdt, & De Houwer, 2007). Kernis, Grannemann 및 Barclay(1989)에 따르면 높은 자존감 집단에서 안정성 차원에 따라 적대감과 분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불안정한 자존감 집단이 가장 높았고 안정적 집단이 가장 낮은 적대감과 분노를 나타냈다. Bushman과 Baumeister (1998) 연구에서는 암묵적 자존감이 심리 건강이나 신체 건강과 명시적 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보고를 해주고 있다. 문지혜(2010)의 연구에서도 한국 성인의 경우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식의 전반적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구체적 혹은 암묵적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자존감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과 적응문제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자존감의 발달과 관련하여 영재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연구에서 서로 상치되는 결과(Altman, 1983; Enrich, 1982; Terman, 1925; Terman et al., 1947; Webb, 1993; Whitmore, 1980)들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영재아동의 자기개념을 포함한 사회정서 발달척도가 연구마다 달랐다는 점에서 해석이 쉽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사용하여 영재아동들을 대상으로 명시적 자존감 및 암묵적 자존감, 자존감의 불일치 정도 등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불일치가 영재아동의 적응 특히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영재아동의 경우 높은 지적 특성과 학업수행으로 매우 높은 명시적 자존감을 지니고 있으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고 지적 수행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정서적 발달 수준으로 암묵적인 자존감은 높지 않을 수 있다. 즉 경쟁과 획일화의 압력이 큰 국내 교육환경 속에서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영재아동들은 높은 명시적 자존감을 지녔더라도 발달간의 불균형, 스트레스로 인해 암묵적 자존감 수준은 명시적 자존감 수준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 수준이 남아와 여아에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나(강명희, 2000; Lahey, Goodman, Schwab-Stone, Waldman, & Bird, 2000) 본 논문에서는 남아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대부

본의 영재교육이 수학, 과학중심으로 이뤄져 과학영재교육원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는 남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아를 중심으로 영재아동과 일반 아동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및 영재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일치여부에 따라 문제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재 남아와 일반 남아의 자존감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집단 및 연령에 따라 명시적 자존감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집단 및 연령에 따라 암묵적 자존감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 및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공격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영재 집단은 울산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의 과학영재 남아 1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 집단인 일반아동은 영재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아동으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 남아 중에서 무선 표집 된 362명을 대상으로 표집대상 아동은 모두 414명이었다. 울산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의 경우 선발 시 학교장으로부터 1차로 2~3인을 추천받은 후 서류, 면접 등의 다단계선발을 하는데 이들은 이러한 추천을 받지 못한 아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으로 정의하였다. 대상 아동의 연령별 빈도를 살펴보면, 영재아동은 초등학생이 23명(17.4%), 중학생이 109명(82.6%)이었다. 일반아동은 초등학생이 29명(10.3%), 중학생은 253명(89.7%)로 영재아동과 일반 남아의 연령별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집단별 연령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학년별 영재남아와 일반남아의 수

N(%)

	영재	일반	전체
초등	23(17.4)	29(10.3)	52(12.6)
중등	109(82.6)	253(89.7)	362(87.4)
전체	132(31.9)	282(68.1)	414(100.0)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재 남아와 일반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서 자존감 검사와 암묵적 자존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또한 영

재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차이가 공격성과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체 행동 척도: 신체증상 검사와 공격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각 도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명시적 자존감(ESE) 척도: Harter의 자가지각척도

명시적 자존감 검사로 Harter(1985)의 아동용 자가지각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 자기가치감을 알아보는 문항이 6문항, 일반적 자아를 알아보는 문항이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자아는 하위개념으로 학업능력 6문항, 사회적 수용 6문항, 운동능력 6문항, 외모 6문항, 품행 6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검사는 긍정형으로 시작하는 문항과 부정형으로 시작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문항의 질문형식은 긍정적인 진술과 부정적인 진술로 양분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동은 두 범주 중 자신과 비슷한 쪽을 먼저 택한 후 다시 “약간 나와 비슷”한지 “정말 나와 비슷”한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학업능력 자존감이 .73, 사회적 수용은 .62, 운동능력 .75, 외모 .67, 품행 .42, 전반적 자기가치감이 .77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는 .86이었다. 명시적 자존감 검사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명시적 자존감 검사의 각 하위영역에 대한 문항 구성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학업능력	1, 7, 13, 19, 25, 31	6	.73
사회적 수용	2, 8, 14, 20, 26, 32	6	.62
운동능력	3, 9, 15, 21, 27, 33	6	.75
외모	4, 10, 16, 22, 28, 34	6	.67
품행	5, 11, 17, 23, 29, 35	6	.42
전반적 자기가치감	6, 12, 18, 24, 30, 36	6	.77
전체 평균(ESE)		총 36문항	.86

나. 암묵적 자존감(ISE) 척도: 이름 자음 선호

암묵적 자존감 척도는 문지혜(2009)에서 사용된 한글자음 선호를 사용하였다. 이름에 쓰인 알파벳을 그렇지 않는 알파벳보다 더 선호한다는 Nuttin(1985)의 이름글자 선호효과에 따라서 알파벳 대신 한글자음 19개를 사용한 것이다. 암묵적 자존감 척도는 다양하지만 이 척도들은 자기를 좋아하면 자기와 연합된 대상도 좋아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문지혜, 2009에서 재인용). 이름 글자 선호 과제에서 19개 자음은 무선적으로 제시되며 ‘각 자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직감적으로 빨리 판단하라’는 지시문이 제시되어 있다. 리커트 7점 척도로 ‘전혀 아름답지 않다(1점)’에서 ‘매우 아름답다(7점)’으로 되어 있다. 암묵적 자존감은 Kitayama와 Karasawa(1997)에 사용된 방식에 따라 구해졌다. 먼저, 특정

자음이 이름에 들어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그 자음에 대한 선호점수를 구했다(기저선 점수). 다음으로, 특정 자음의 개별 평가치에서 기저선 점수를 빼서 각 자음의 상대적 평가치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각 응답자의 이름 자음 상대 선호치에서 이름비자음 상대 선호를 빼서 암묵적 자존감 점수를 구하였다. 이름자음 선호점수의 평균은 .21, 비이름자음 선호점수의 평균은 -.04로 이름자음 선호가 비이름자음 선호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대응표본 $t=4.31$, $p<.001$).

다. 신체증상 및 공격성 척도

신체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K-CBCL(Korea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K-CBCL은 부모가 4~17세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적응 및 부적응 행동, 정서적 문제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Achenbach(1991)가 제작한 것을 오경자, 홍강의, 이해련(1997)이 번안하였다. K-CBCL은 크게 사회능력 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Behavior Program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능력 척도는 사회성 척도와 학업 수행 척도의 2개 척도와 총 사회능력 점수의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중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신체증상척도의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자기 보고식 검사로 이루어졌다. 각 항목은 1~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검사도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계수는 .83이었다.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민정(200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Crick와 Grotpeter(1995, 1996) 척도, Dodge와 Coie(1987) 척도, Hart 등(2000)의 척도를 참고한 것이다. 이 척도는 주도적-외현적 공격성,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주도적-관계적 공격성,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인 4개의 하위 영역별로 구성되어있다. 각 하위 영역별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총 24문항의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한 평정은 1~5점 사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척도 중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의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박민정(2002)의 연구에서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신뢰도는 .88, 대응관계적 공격성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검사도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78,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81로 나타났다. 연구에 사용된 신체증상 및 공격성 검사의 문항 구성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신체증상 및 공격성 검사의 각 영역에 대한 문항 구성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신체증상	1, 2, 3, 4, 5, 6, 7, 8	8	.83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9, 10, 11, 12, 13, 14	6	.78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15, 16, 17, 18, 19, 20	6	.81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2010년 5월 울산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원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 도구 167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설문지중 불성실한 답변이나 답변이 누락되어 분석할 수 없는 설문지 35부를 제외하고 132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본 영재아동들이 주거하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개소를 섭외하여 본 영재교육원에 교장 추천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 311명(일반아동으로 정의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미회수 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누락되어 분석할 수 없는 설문지 29부를 제외하고 282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통계와 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산출, 연구대상의 빈도를 알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재 남아와 일반 남아의 자존감 차이, 영재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집단 간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연구문제 1. 영재 남아와 일반 남아의 자존감은 차이가 있는가?

<표 4> 집단 및 연령에 따른 명시적 자존감 하위영역의 평균 및 표준편차 M(SD)

	영재 남아			일반 남아			전체		
	초등	중등	전체	초등	중등	전체	초등	중등	전체
학업 능력	3.25 (.50)	3.14 (.45)	3.16 (.46)	2.58 (.35)	2.52 (.54)	2.52 (.52)	2.88 (.53)	2.70 (.59)	2.72 (.58)
사회적 수용	3.05 (.49)	2.71 (.50)	2.77 (.52)	2.27 (.32)	2.74 (.46)	2.69 (.47)	2.62 (.56)	2.73 (.48)	2.72 (.49)
운동 능력	2.64 (.79)	2.48 (.59)	2.51 (.63)	2.36 (.37)	2.47 (.58)	2.46 (.56)	2.48 (.60)	2.47 (.58)	2.48 (.58)
외모	2.99 (.56)	2.54 (.58)	2.62 (.60)	2.62 (.39)	2.36 (.53)	2.38 (.53)	2.79 (.51)	2.41 (.55)	2.46 (.56)
품행	2.80 (.38)	2.78 (.41)	2.78 (.40)	2.45 (.22)	2.65 (.39)	2.63 (.39)	2.61 (.35)	2.69 (.40)	2.68 (.40)
전반적 자기 가치감	3.45 (.67)	2.86 (.56)	2.96 (.62)	2.43 (.34)	2.71 (.59)	2.68 (.58)	2.88 (.72)	2.76 (.58)	2.77 (.60)
전체 평균 (ESE)	3.03 (.37)	2.75 (.33)	2.80 (.35)	2.45 (.20)	2.57 (.36)	2.56 (.35)	2.71 (.41)	2.63 (.36)	2.64 (.37)

연구문제 1-1. 집단 및 연령에 따라 명시적 자존감에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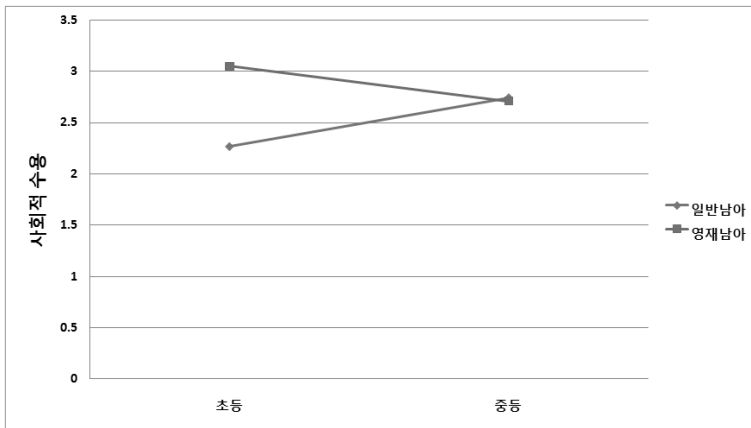
아동의 집단 및 연령에 따른 명시적 자존감 하위영역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영재아동의 명시적 자존감은 일반아동보다 높았다. 집단 및 연령에 따

<표 5> 집단 및 연령에 따른 명시적 자존감 하위영역에 대한 변량 분석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업능력	집단	18.45	1	18.45	72.74***
	연령	.33	1	.33	1.29
	집단 * 연령	.01	1	.01	.06
	오차	103.98	410	.25	
	합계	141.31	413		
사회적수용	집단	6.18	1	6.18	28.19***
	연령	.19	1	.19	.86
	집단 * 연령	7.22	1	7.22	32.90***
	오차	89.93	410	.22	
	합계	98.44	413		
운동능력	집단	.96	1	.96	2.79
	연령	.03	1	.03	.08
	집단 * 연령	.88	1	.88	2.56
	오차	140.26	410	.34	
	합계	141.33	413		
외모	집단	3.33	1	3.33	11.44**
	연령	5.68	1	5.68	19.48***
	집단 * 연령	.41	1	.41	1.40
	오차	119.47	410	.29	
	합계	130.04	413		
품행	집단	2.53	1	2.53	16.66***
	연령	.36	1	.36	2.36
	집단 * 연령	.59	1	.59	3.91*
	오차	62.12	410	.15	
	합계	65.24	413		
전반적 자기가치감	집단	14.91	1	14.91	45.34***
	연령	1.07	1	1.07	3.24
	집단 * 연령	8.33	1	8.33	25.35***
	오차	134.80	410	.33	
	합계	150.47	413		
전체평균 (ESE)	집단	6.29	1	6.29	53.59***
	연령	.28	1	.28	2.38*
	집단 * 연령	1.79	1	1.79	15.22***
	오차	48.12	410	.12	
	합계	55.12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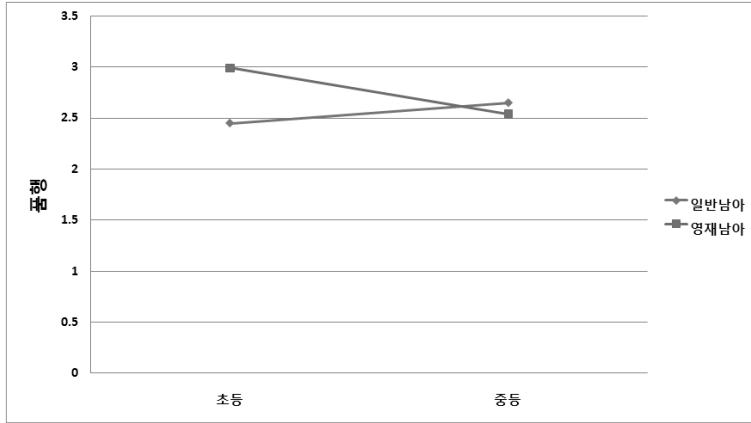
른 명시적 자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학업능력에서 영재 남아가 일반 남아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2.74, p<.001$). 사회적 수용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28.19, p<.001$), 일반 남아에 비해 영재 남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2.90, p<.001$). 즉, 영재 남아의 경우 연령이 높으면 사회적 수용이 낮았고 일반 남아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으면 사회적 수용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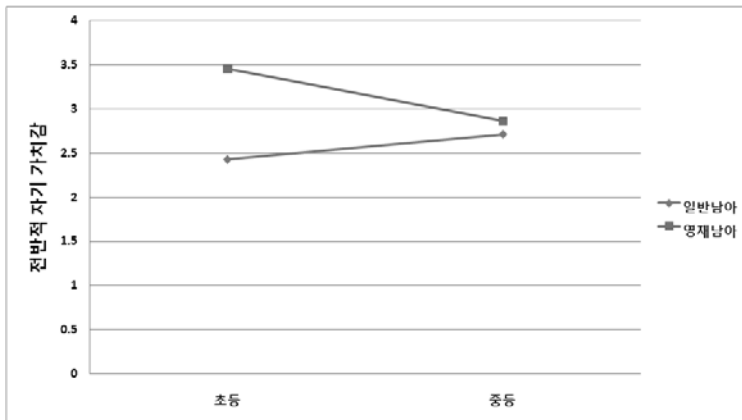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수용에서의 집단, 연령 간 상호작용

외모에서는 집단($F=11.44, p<.01$)과 연령($F=19.48, p<.001$)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재 남아가 일반 남아보다 높고,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품행에서는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F=16.66, p<.001$), 일반 남아에 비해 영재 남아가 더 높았다. 품행에서 집단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3.92, p<.05$). 즉, 영재 남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 품행이 낮았고 일반 남아는 연령이 증가하면 품행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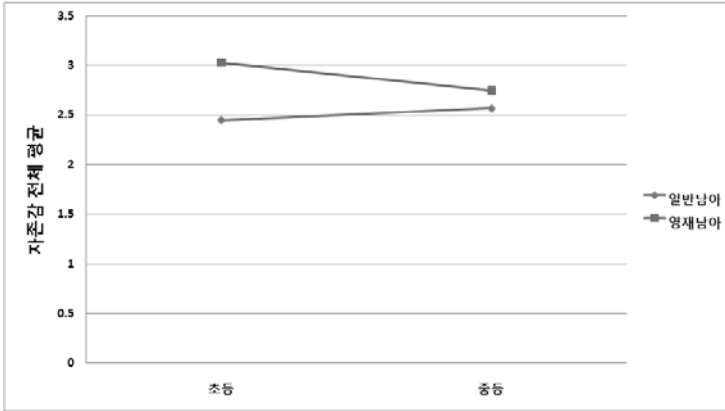


[그림 2] 품행에서의 집단, 연령 간 상호작용

전반적 자기가치감에서도 집단차이가 나타났으며($F=45.34, p<.001$), 집단과 연령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25.35, p<.001$). 즉, 영재 남아의 경우 연령이 높으면 전반적 자기가치감이 낮았고 일반 남아는 연령이 높으면 전반적 자기가치감도 높았다. 이러한 자존감의 평균인 명시적 자존감은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53.59, p<.001$), 영재 남아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집단과 연령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5.22, p<.001$).



[그림 3] 전반적 자기가치감에서의 집단, 연령 간 상호작용



[그림 4] 명시적 자존감 전체평균(ESE)에서의 집단, 연령 간 상호작용

즉, 영재 남아의 경우 연령이 높으면 명시적 자존감이 낮았고 일반 남아의 경우 연령이 높으면 명시적 자존감이 높았다. 따라서 운동능력을 제외한 명시적 자존감의 하위영역인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외모,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감, 전체 등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두 영재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이 일반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 간 차이에서는 외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다.

연구문제 1-2. 집단 및 연령에 따라 암묵적 자존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집단 및 연령에 따른 아동의 집단별 암묵적 자존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그런데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집단 및 연령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영재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은 일반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암묵적 자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일반 남아에 비해 낮은 점이다. 이는 영재 집단의 경우 외현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안정적이며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암묵적 자존감 수준은 명시적 자존감 수준을 따라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6> 집단 및 연령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암묵적 자존감
영재 남아	초 등	-.02 (1.21)
	중 등	.22 (1.20)
	전 체	.18 (1.20)
일반 남아	초 등	.09 (1.27)
	중 등	.31 (1.19)
	전 체	.29 (1.20)
전 체	초 등	.04 (1.23)
	중 등	.28 (1.19)
	전 체	.25 (1.20)

<표 7> 집단 및 연령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변량 분석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	.48	1	.48	.33
연령	2.34	1	2.34	1.62
집단 * 연령	.00	1	.00	.00
오차	590.50	410	1.44	
합계	594.08	413		

연구문제 2.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 및 공격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일치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우선 두 자존감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두 자존감수준에 따라 4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다. 명시적 자존감은 평균이 2.80($SD=.35$)이고, 암묵적 자존감은 .18($SD=1.20$)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집단은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명시적 자존감 \geq 2.80 & 암묵적 자존감 \geq .18). 두 번째 집단은 명시적 자존감은 평균보다 높지만, 암묵적 자존감은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로 명명하였다(명시적 자존감 \geq 2.80 & 암묵적 자존감 $<$.18). 세 번째는 명시적 자존감은 평균보다 낮고, 암묵적 자존감은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으로 하였다(명시적 자존감 $<$ 2.80 & 암묵적 자존감 \geq .18).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집단은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명시적 자존감 $<$ 2.80 & 암묵적 자존감 $<$.18). 두 자존감의 구분기준을 <표 8>에 제시하였다. 전체 영재아동 중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집단이 42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 집단,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집단,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 집단 순이었다.

<표 8>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수준별 집단 구분 기준

변인	명시적 자존감 점수	암묵적 자존감 점수	N(%)
ESE* 상 & ISE** 상	2.80 이상	.18 이상	26(19.7)
ESE 상 & ISE 하	2.80 이상	.18 미만	33(25.0)
ESE 하 & ISE 상	2.80 미만	.18 이상	31(23.5)
ESE 하 & ISE 하	2.80 미만	.18 미만	42(31.8)

*ESE: 명시적 자존감, **ISE: 암묵적 자존감

연구문제 2-1. 영재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에는 차이가 있는가?

자존감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영재 집단의 자존감 유형에 따른 신체증상의 차이 M(SD)

ESE 상 & ISE 상	ESE 상 & ISE 하	ESE 하 & ISE 상	ESE 하 & ISE 하	F
1.95a	2.56b	2.62b	2.31ab	5.17**
(.70)	(.61)	(.54)	(.88)	

** $p < .01$.

a,b: Scheffé 사후분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함.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의 경우 신체증상의 평균점수가 1.95 ($SD=.70$)이었고,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의 평균은 2.56($SD=.61$)이었다.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의 평균은 2.62($SD=.54$)이었으며,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의 평균은 2.31($SD=.88$)이었다. 즉, 신체증상의 평균이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인 영재 남아의 경우 신체증상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이 높았고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 ‘명시적 상 & 암묵적 상’ 순이었다.

이러한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지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17, p < .01$). 즉, 명시적 자존감이 높으나 암묵적 자존감이 낮은 집단이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모두 높은 집단에 비해 신체증상을 더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명시적 자존감에서는 높은 암묵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둘 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보다 신체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는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과 같이 불일치를 지니는 영재 남아의 경우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와 같이 두 자존감이 일치하는 영재 남아에 비해 신체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2-2. 영재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라 공격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자존감 유형에 따라 대응적-외현적 공격성과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자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 차이 M(SD)

	ESE 상 & ISE 상	ESE 상 & ISE 하	ESE 하 & ISE 상	ESE 하 & ISE 하	F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2.21a	2.71ab	2.83b	2.50ab	3.76*
	(.60)	(.91)	(.76)	(.69)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1.94a	2.24ab	2.67b	2.37ab	5.64**
	(.62)	(.78)	(.56)	(.72)	

** $p < .01$, * $p < .05$.

a,b: Scheffé 사후분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함.

두 자존감의 수준에 따른 대응적-외현적 공격성을 살펴보면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의 평균은 2.21($SD=60$),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의 평균은 2.71($SD=91$),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의 평균은 2.83($SD=76$), 그리고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의 평균은 2.50($SD=.69$)이었다. 즉 대응적-외현적 공격성의 평균은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F 검증 한 결과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외현적 공격성, $F=3.76$, $p<.01$; 관계적 공격성, $F=3.76$, $p<.01$). 또한 Scheffé 사후분석을 통해 집단 간 비교를 한 결과 두 자존감이 높은 집단 즉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 집단과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집단 사이에서만 대응적-외현적 공격성 및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두 자존감수준이 일치하는 집단이 불일치한 집단보다 공격성을 덜 나타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존감을 비교해보고 영재아동이 우수한 학업성취나 다양한 수행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아동과 유사한 많은 문제행동과 적응문제를 나타내는 이유의 하나로 이들의 자존감 즉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수준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영재아동의 문제행동과 적응문제는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아의 신체증상과 공격성에 초점을 두었다.

영재 남아와 일반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에 차이가 나는지 집단 및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명시적 자존감에서 운동능력을 제외한 학업 능력, 사회적 수용, 외모,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감에서 영재 남아가 일반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상한 바와 같이, 영재 남아들은 자신이 학교생활이나 학업수행에서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래들로부터 인기가 있다고 지각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기대되는 대로 행동하며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재 남아의 전반적 자기가치감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재 남아들이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만족스럽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재 아동들이 일반아동보다 더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진다는 기존연구와 일치(전경원, 2000; 정수자, 1997; Ablard, 1997; Chan, 1988)하며,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자존감이 일반아동보다 영재아동이 더 높다는 김혜숙(2001), McCoach와 Siegle(2003)의 연구, 영재 남아아동은 일반남자아동보다 전반적인 자아개념 점수가 높았다는 Kelly와 Colangelo(198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외모에 대해서는 일반아동이 영재아동보다 더 높다는 김혜숙(2001)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외모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 제 2차 성징이 일어나면

서 급격한 신체발달과 성적성숙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수용,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감에서 집단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수용,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감 모두 일반 남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영재 남아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수용,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발달적으로 아동기부터 청소년전기까지 자존감이 높아지나 청소년기이후 자존감이 급속히 낮아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발달이 빠른 영재들이 일반아동보다 빨리 자존감 저하현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구나 영재집단의 경우 사회성이 인지적 능력보다 강조되는 청소년초기부터 급속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명시적 자존감은 영재 남아에게서 높게 나타난 반면, 암묵적 자존감에서는 집단 및 연령차 모두 발견되지 않았으며, 영재 남아가 일반 남아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영재 남아의 겉으로 보이는 혹은 자신이 인지하는 자존감은 높지만 무의식속에서 작동하는 혹은 보이지 않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영재 아동은 자신이 우수한 수행에 따른 비교와 잦은 칭찬과 같은 정적 강화, 영재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 등이 명시적 자존감을 높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한 부담감과 실패를 경험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기 쉬우며, 우수한 아이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암묵적 자존감의 낮은 점수에 대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영재아동의 사회적 역량이나 자존감의 수준에서 서로 상치하는 결과를 보인 연구들은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서로 다른 측면을 살펴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영재아동이 높은 자존감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들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영재들의 자존감을 보다 입체적으로, 즉 명시적/암묵적 자존감 모두를 고려했을 때, 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재아동의 경우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외현적인 학업적 수행과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으로 인해 명시적인 자존감은 높지만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영재아동의 경우 암묵적인 자존감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영재아동의 문제행동,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이는 Bushman과 Mauneister(1998), Hetts와 Pelham(2001), Pelham 과 Hetts(1999) 및 Spalding과 Hardin(1999) 등 여러 연구에서 암묵적 자존감이 심리 건강이나 신체 건강과 명시적 자존감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준다. 이 결과들에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자존감의 수준이 모두 높아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문제2>에서 영재 남아의 자존감의 유형에 따라 신체증상 및 공격성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자료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인 영재 남아의 경우 신체증상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고 공격성도 높았다.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은 오히

려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보다도 문제행동수준이 높았다. 이는 낮은 명시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높은 암묵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낮은 암묵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보다 신체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두 자존감 수준 모두 높은 사람이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하며 높은 암묵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나 명시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신체적으로 가장 문제를 겪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존감 수준 일치 유형과 불일치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자존감이 일치할 때 보다 불일치 할 때 신체증상이 더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시적 자존감이 낮고 암묵적 자존감이 높은 '불일치하는 낮은 자존감'은 현재의 심리적 곤란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Zeigler-Hill, 2006) 및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사이의 높은 불일치가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선행연구(Schröder-Abé, Rudolph & Schütz, 2007)와 일치하는 결과다.

다음으로 자존감 유형에 따른 공격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면, 대응적-외현적 공격성과 대응적-관계적 공격성 모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대응적-외현적 공격성에서 '명시적 하 & 암묵적 상'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대응적-관계적 공격성도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 순으로 대응적-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냈다. 즉, 높은 명시적 자존감을 가진 아동이라 할지라도 암묵적 자존감이 낮으면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명시적 자존감을 지닌 아동에게도 나타나는데 낮은 명시적 자존감을 지닌 아동이라도 암묵적 자존감이 높으면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자존감이 일치할 때 보다 불일치 할 때 공격성이 더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공격행동과 자존감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Baumeister, 1998; Buss & Perry, 1991; Rigby & Slee, 1993; Salmivalli, 2001)는 자존감의 단편적 측면만 조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두 자존감의 관련성에서 보면,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이 다른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자존감의 일치여부에 따라 문제행동(신체증상 및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자존감의 불일치 유형 중 '명시적 자존감 상 & 암묵적 자존감 하' 유형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보인 유형이다. 이들은 명시적으로는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방어적 행동을 보이면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는 다른 불일치 유형인 '명시적 자존감 하 & 암묵적 자존감 상' 유형은 자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명시적 자존감 수준이 유지되지 못한 결과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두 자존감이 모두 낮은 아동이 두 자존감이 불일치한 유형의 아동보다 신체증상과 공격성을 덜 나타냈다. 이러한 자존감의 불일치는

사건들에 대한 보다 강한 반응(Kernis, Greenier, Herlocker, Whisenhunt, & Abend, 1997), 보다 높은 수준의 분노와 적대감(Kernis, Granneman, & Barceley, 1989)과 관련되며, 자기 고양성(Bosson, Brown, Zeigler-Hill, & Swann, 2003)과 방어적 행동들(Jordan et al., 2003)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영재 남아는 일반 남아에 비해 명시적 자존감은 높지만 암묵적 자존감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재 남아의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수준에 따른 유형에 따라 문제행동 즉, 신체증상과 공격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자존감의 불일치한 점이 일치할 때보다 신체증상과 공격성을 더 높게 나타나게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사람이 가진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현실에서의 자존감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 심리적 불편을 느끼고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자존감이 일치한다면 자기 개념과 관련된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것이고 이는 영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영재 아동에게 한글 이름 자음 선호검사를 실시한 점이다. 국내에서 이름 자음 선호 검사를 실시한 연구가 소개되고 있으나, 아동에게 한글로 된 이름 자음 선호를 측정 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본 검사를 다양한 아동집단에서 사용하여 유용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재 남아의 자존감 유형에 따른 신체증상과 공격성을 본 것이다. 현재, 영재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많았다. 그 차이를 자존감의 명시적인 부분과 암묵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측정하여 신체증상의 차이를 본 것은 성인연구(문지혜, 2009)에서는 실시되었으나, 아동과 영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두 자존감유형에 따른 적응문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대상의 문제로서 표집이 제한적이어서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집단을 선정하여 다양화 할 필요가 있고, 자존감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구성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연구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대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재 집단과 일반 집단의 사례수 차이가 컸다. 따라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간과되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적이고 비교될 수 있는 집단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별 차이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은 성차를 나타낸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성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의 수준별 집단별 공격성과 신체증상의 정도를 영재 남아에게만 국한시켜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재와 일반아동의 자존감 유형별 공격성과 신체증상의 정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명희 (2000).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아동, 교사 평가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교육인적자원부 (2000). **영재교육진흥법**.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8). **영재교육진흥법(개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혜숙 (2001). **청소년기 영재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청소년기 영재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문지혜 (2009). **암묵적 자존감에 대한 정서적 글쓰기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박민정 (2002).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박승진 (2008). **성취 지향적·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자의 암묵적·명시적 자존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안도희, 한기순, 김명숙 (2009).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과학영재의 과학문제발견력과 정의적, 인지적 특성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 **한국영재학회**, 19(2), 179-302.
-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양적성연구소
- 윤여홍 (1998). 영재아 판별에서 한국판 영재아 행동특성 체크리스트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8(2), 1-30.
- 전경원 (2000). **영재교육학**. 서울: 학문사.
- 정수자 (1997). 기관영재, 일반영재, 평계집단 간의 성격차이 비교분석. **성결대학교 논문집**, 4(1), 12-24.
- Ablard, K. E. (1997). Self-perceptions and needs as a function of type of academic ability and gender. *Roepers Review*, 20(2), 110-115.
- Altman, R. (1983).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search model. *Roepers Review*, 6(2), 65-68.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laine, B., & Crocker, J. (1993). Self-esteem and self-serving biases in reactions to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 integrative review.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55-85). Hillsdale, NJ: Erlbaum.
- Bosson, J. K., Brown, R. P., Zeigler-Hill, V., & Swann, W. B. (2003). Self-enhancement tendencies among people with high explicit self-esteem: The moderating role of implicit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2, 169-187.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se self-love or self-hate led to violence?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52-460.
- Chan, D. (2001). Learning styles of gifted and nongifted secondary students in Hong Kong. *Gifted Child Quarterly*, 45(1), 35-44.
- Cornell, D. G. (1983). Gifted children: the impact of positive labelling on the family syste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322-335.
- Dauber, S. L., & Benbow, C. P. (1990). Aspects of personality and peer relations of extremely talented adolescents. *Gifted Child Quarterly*, 34, 10-15.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 Epstein, S., & Morling, B. (1995). Is the self motivation to do more than enhance and/or verify itself? In M. H. Kernis (Ed.),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9-29). New York: Plenum.
- Ehrlich, V. Z. (1982). *Gifted children: A guide for parents and teach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orsyth, P. (1987). A study of self-concept, anxiety, and security of children in gifted: French immersion, and regular classes.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21, 153-156.
- Frank, E., De Raedt, R., & De Houwer, J. (2007). Implicit but not explicit self-esteem predicts future depressive symptomatolog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 2448-2455.
- Greenwald, A. G., & Banaji, D. E.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McNeilly-Choque, M. K., Porter, C. L., & McKee, T. R. (2000). Russian parenting styles and family processes: Linkages with subtypes of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In K. A. Kerns, J. M. Contretras, & A. M. Neal-Barnett (Eds.), *Family and peers: Linking two social worlds*. Westport: Praeger.
- Harter, S. (1982).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elf-esteem.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pp. 275-385). New York: John Wiley & Sons.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Hetts, J. J., & Pelham, B. W. (2001). A case of non-conscious aspects of the self-concept. In G. Mossowitz (Ed.), *Cognitive social psychology: The Princeton symposium on the legacy and future of social cognition* (pp. 105-123). Mahwah, NJ: Erlbaum.
- Jordan, G. H., Spencer, S. J., Zanna, M. P., Hoshino-Browne, E., & Correll, J. (2003). Secure and defensive self 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969-978.

- Kaplan, H. B. (1982). Self-attitudes and deviant behavior: new direc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Youth and Society, 14*(2), 185-211.
- Kelly, K. R., & Colangelo, N. (1984). Academic and social self-concepts of gifted, general, and special students. *Exceptional Children, 50*, 551-554.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 1-26.
- Kernis, M. H., Greenier, K. D., Herlocker, C. E., Whisenhunt, C. R., & Abend, T. A. (1997). Self-perceptions of reactions to doing well or poorly: Th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 845-854.
- Kernis, M. H., Granneman, B. D., & Barcele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013-1023.
- Khoury, T. J., & Appel, M. A. (1977). Gifted children: Current trends and issu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6*, 49-55.
- Kitayama, S., & Karasawa, M. (1997). Implicit self-esteem in Japan: Name letters and birthday numb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3*, 736-742.
- Knepper, W., Obrzut, J. E., & Copeland, E. P. (1983). Emotional and social problem solving thinking in gifted and average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2*, 25-30.
- Lahey, B. B., Goodman, S. H., Schwab-Stone, M., Waldman, I. D., & Bird, H. (2000).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oppositional behavior and conduct problem: A cross-sectional household study of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88-503.
- Lea-Wood, S. S., & Clunies-Ross, G. (1995). Self-esteem of gifted adolescent girls in Australian schools. *Roeper Review, 17*(3), 195-97.
- Ludwig, G., & Cullinan, D. (1984). Behavior problems of gifted and nongifted elementary school girls and boys. *Gifted Child Quarterly, 28*(1), 37-40.
- McCoach, D. B., & Siegle, D. (2003).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cademic self-concept in gifted and general education students. *Roeper Review, 25*(2), 61-67.
- Nuttin, M. J. (1985). Narcissism beyond Gestalt and awareness: The name letter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353-361.
- Pelham, D. L., & Hetts, J. J. (1999). Implicit and explicit personal and social identity: Toward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social self. In T. Taylor, & R. Kramer (Eds.), *The psychology of the social self* (pp. 115-143). Mahwah, NJ: Erlbaum.
- Rigby, K., & Slee, P. T. (1994). Peer victimization at school.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19*(1), 3-10.

- Robinson, N. (2008). The social world of gifted children & youth. In S. I. Pfeiffer (Ed.), *Handbook of Giftedness in Children* (pp 33-52). New York: Springer.
- Roedell, W. C. (1984). Vulnerabilities highly gifted children. *Roepers Review*, 6, 127-13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mivalli, C. (2001). Feeling good about oneself, being bad to others? Remarks on self-esteem, hostility, and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and Violent Behavior*, 6, 375-393.
- Schröder-Abè, M., Rudolph, A., & Schütz, A., (2007). High implicit self-esteem is not necessarily advantageous: Discrepancies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self esteem and their relationship with anger expression and psychological health.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1, 319-339.
- Spalding, L. R., & Hardin, C. D. (1999). Unconscious unease and self-handicapping: Behavioral conseq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Psychological Science*, 10, 535-539.
- Terman, L. M. (1925).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gifted children.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1.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erman, L. M., & Oden, M. H. (1947). The gifted child grows up: Twenty five years' follow-up a superior group.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4*.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Webb, J. T. (1993).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 A. Heller,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for Research on Giftedness and Talent* (pp. 525-538). Oxford: Pergamon Press.
- Whitmore, J. R. (1980). *Giftedness, conflict and underachievement*. Boston: Allan & Bacon.
-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71-175.
- Zeigler-Hill, V. (2006). Discrepancies between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Implications for narcissism and self-esteem inst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74, 119-143.

= Abstract =

Comparison of Self-Esteem in the Gifted & Ordinary Boys and Analyses of Psychosomatic Symptoms and Aggression according to Self-Esteem Patterns in the Gifted

Hyewon Park

University of Ulsan

Jungyun Ha

University of Ulsan

Jihye Moon

Kyungnam University

Explicit & implicit self-esteems were measured with 132(23 elementary & 109 middle school students) gifted & 282(29 elementary & 253 middle school students) ordinary students. Additional measures on psychosomatic symptoms & aggression were obtained with gifted students. Gifted boys reported higher ESE on most of subscales except the athletic self-esteem.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ISE between two groups. Self esteem types significantly predicted psychosomatic symptoms & aggression in the gifted. Especially the discrepancy between ESE & ISE was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for both internalized & externalized behavior problems. The behavior problem ratings were higher in the self-esteem discrepant groups compared to the congruent groups. This study showed that the congruency between ESE & ISE is important from childhood and later studies need to find intervention strategies against the self-esteem discrepancy.

Key Words: The gifted, Boys, Explicit self-esteem, Implicit self-esteem, Aggression, Psychosomatic symptoms, Self-esteem discrepancy

1차 원고접수: 2011년 2월 8일
수정 원고접수: 2011년 3월 17일
최종 게재결정: 2011년 3월 22일